

제1회 베트남 성균 한글 백일장

학교	하노이 국립 외국어 대학교	성명	응웬 티 투크 Nguyen Thi Thuc	학년	4	생년월일	1992년 12월 28일
----	----------------	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	---	------	---------------

선 물
 꽃을 얻어 참아 한다. 그렇기 때문에
 나에게 선물하려면 무엇일지 고
 민할 필요가 없다. 야생꽃 한 다발이라도
 나를 감동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.
 중학교 2학년 때 과학 수업에 아주
 재미있는 지식을 배우게 되었다. 흰색
 장미꽃을 색깔 물에 꽃이 면 흰색 꽃이 표
 은 다 른 색깔로 될 것이다. 열 세 살
 인 나에게 그것은 얼마나 신기했을까?
 한 교에 세 지 방 가 는 길에 장미꽃은 무
 슌 색깔로 변 색 하 면 종 종 지 계 속 그
 생 각 을 했 다. 집 에 도 착 하 자 마 자 바 로
 보 라 색 잉크를 꽃병에 따르고 나서 실
 험 을 해 보 았 다. 5 일 후 에 흰 색 장
 미 꽃 잎 은 보 라 색 의 로 되 는 것 이 같 보 였
 다. 나 는 내 성과 과 에 만 족 할 수 밖 에
 없 어 쓰 다. 네 고양 이 까 지 “야옹”라 고 출 하
 했 지 만 우리 언니 는 오 비 려 내 가 한
 것이 진 짜 쓸 데 없 고 부 치 한 짓 이 라 고
 생 각 했 나 본 다. 근 데 언니 는 항상 그
 래 서 나 도 신 경 쓰 지 았 다. 내 가
 주 공 하 는 것 을 싫 어 하 고 내 가 하 고 싶
 은 것 은 응 원 해 주 지 았 은 사 람 은 우리
 언니 였 다. 그 러 나 언니 의 말 은 나 를

제1회 베트남 성균 한글 백일장

학교	하노이 국립외국어대학교	성명	응웬 티 푹 Nguyen Thi Thuc	학년	4	생년월일	1992년 12월 28일
----	--------------	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	---	------	---------------

고민하게 배 주었다.

"보라 색이든 분홍 색이든 흰 색이든 뭐가
 왜 다르니? 어쨌든 다 시들어 버린 거
 야."

말배! 꽃이 피고 시들다. 시들지
 않는 꽃이 있으면 좋겠다. 그런 생각
 들 가지고 시들리 앓은 꽃을 만 들
 수 있 는 날 을 꿈 꾸 있 다. 그런 데 알 파 안
 된 우 에 중 학 교 4 학 번 생 이 되 었 고 고
 등 학 교 이 보 학 시 엄 을 준 비 하 노 라 고 그
 '사소한 꿈'을 잊 어 버 렸 다. 안 타 께 지 만
 꽃 이 피 고 시들 어 야 한 다. 그 동 안 종
 은 학 교 에 서 이 보 학 수 있 도 록 나 조 차
 눈 앞 만 큼 정 말 열 심 이 공 부 했 다. 업 마
 가 공 부 좀 그 만 하 라 고 하 셔 야 할 정
 도 로 열 심 이 했 다. 그 러 나 생 각 과 달
 리 시 엄 보 는 날 에 잘 하 리 못 했 다.
 얼 마 나 노력 했 는 데 일 이 잘 만 돼 서
 내 무 거 운 표 정 은 당 연 한 것 이 다. 방
 에 서 혼 자 엉 엉 울 었 다. 3 일 재 아 무
 것 도 먹 고 싶 지 않 아 웃 기 만 했 다.
 가 족 과 친 구 들 을 걱정 하 게 하 는 것 을
 알 기 만 항 피 하 면 서 슬 퍼 서 그 냥 다.
 내 방 의 ~~문~~ 문 이 갑 자 기 열 렸 다.
 언 니 다. 무 슌 인 이 리? 나 를 비 웃 으 러

제1회 베트남 성균 한글 백일장

학교	하노이 국립외국어대학교	성명	응웬 티 푹 Nguyen Thi Thuc	학년	4	생년월일	1992년 12월 28일
----	--------------	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	---	------	---------------

문 제 아 니 지 ? 언 니 는 무 엇 을 는 고
 왔 다 . 꽃 이 켜 다 . 보 라 색 랑 미 곱 이 네
 진 22라 꽃 이 아 니 라 중 이 조 만 들 어 진 꽃
 이 었 다 .
 "자 ! 네 가 예 전 부 터 원 하 는 시 는 리
 앓 는 꽃 이 다." 언 니 가 먼 저 만 으 건 었 다.
 나 에 게 선 물 이 라 고 했 다 .
 "작 가 만 들 거 아 ?"
 "이 령 계 예 배 는 꽃 을 나 바 에 누 가 만
 들 수 있 나 ?" - 웃 으 면 서 언 니 가 만 냈 다.
 언 니 가 웃 으 는 때 제 일 예 배 다 . 그 날
 에 는 언 니 랑 오 개 오 내 애 기 는 나 났 다.
 언 니 는 꽃 이 피 고 시 드 는 것 처럼 상 을
 삼 다 까 배 곯 할 때 도 만 고 힘 들 고 는 파
 랑 때 도 만 다 고 했 다 . 이 런 보 나 색
 장 미 꽃 이 시 들 지 않 는 - 등 이 나 도 향 상
 웃 어 닳 라 고 하 기 도 했 다 . 그 때 나 는
 웃 고 쇠 어 지 만 왜 니 언 니 를 껴 안 아
 주 면 또 엉 엉 웃 었 다 . 시 었 때 문 에
 물 게 아 니 라 언 니 의 관 심 과 사 랑 을
 느 끼 게 돼 서 웃 었 다 . 말 을 안 해 도
 보 지 도 웃 아 지 만 마 음 으 로 는 기 켜 수 있
 다 .
 그 다 음 에 나 는 졸 아 하 는 고 등 학 교 에
 입 학 하 지 못 했 지 만 다 른 중 은 학 교 에

